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새 무기 시험사격을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련일 티프리며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투쟁 주의를인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 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는 미더운 국방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8월 10일 새 무기의 시험사격을 지도하시였다.

은 나라가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 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시정연설 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 의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관철하 기 위한 투쟁에 산악같이 떨쳐나 사회주의 건설의 전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양양 을 일으켜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위 력한 새 기술무기들의 훌륭한 성공공음을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발사장에서 새 무기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나라의 지형조건과 주체전법의 요구에 맞게 개발된 새 무기가 기존의 무기체계들과는 또 다른 우월한 전술적특성을 가진 무기 체계라고 하시면서 국방과학부문에 이 무기 체계개발과업을 제시한 당중앙의 전략 전술적기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감시소에 오르 시어 시험사격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격구역을 내리 시자 하늘땅을 뒤흔드는 요란한 폭음을 터뜨리며 위력한 주체탄들이 자기의 탄생

을 알리듯 눈부신 섬광을 내뿜었다.

시험사격결과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새 무기체계의 우월하고도 위력 한 설계상요구가 완벽하게 현실화되였다 는것이 확정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감시소의 영상 표시장치에 전송된 새 무기의 시험사격 결과를 보시고 당에서 구상하고있던 또 하나의 새로운 무기가 나오게 되였다고 못내 기뻐하시며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국방과학 자들과 군수로동계급은 당에서 방향만 주 면 그 무엇이든지 못해내는 일이 없다고,

당중앙의 전략적구상과 의도를 그 누구보 다 정확히 간파하고 관철해가고있는 이들은 늘 자신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어려 움과 난관을 잊게 해주는 정말 고마운 동지들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가장 고결한 조 국애를 지니고 당의 국방공업발전전략을 충직하게 받들어 나라의 방위력을 끊임 없이 다져가고있는 국방과학자들과 군수로동계급의 영웅적이며 애국적인 위훈은 우리 당의 투쟁사와 더불어 영원히 기록 될것이라고 평가하시였다.

본사기자

절세의 애국자, 민족재생의 은인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 조국 방문 단장이 열렬히 칭송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고 있는 리병희 총련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 단장은 조국해방 74돐에 즈음하여 14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 하였다.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의 수난의 력사에 중추부를 찍고 조국과 인민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사변적인 날이라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 인민이 누리는 참된 삶과 행복은 력사의 이날과 잇닿아있다.

조국에서 해방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 방문단 성원들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불멸의 조국해방업적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며 그이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금치 못하고있다.

은 겨레가 높이 칭송하듯이 김일성대원수님은 절세의 애국자, 민족재생의 은인이시다.

일찍이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깃잡힌 겨레의 운명을 구원하실 숭고한 사명감과 초인간적인 의지로 상상할수 없는 모진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시며 조국해방의 력사적업무를 이룩하시였다.

백두산 줄기줄기, 압록강 굽이굽이마다에 력력히 어

러있는 항일혈전의 자욱들은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민족해방위업에 쌓아올리신 거대한 업적을 길이 전하고 있다.

그이를 모시였기에 우리 겨레는 민족의 혈통과 언어, 력사와 문화를 빼앗긴 비참한 노예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망국노의 처지를 한탄하며 부평초처럼 떠돌던 해외동포들도 당당한 자주독립국가에 한 성원으로 될수 있었다.

민족의 존엄과 기상이 만방에 떨쳐지는 오늘 우리는 김일성대원수님의 조국해방업적을 다시금 심장으로 뜨겁게 절감하고있다.

본사기자

은 겨레는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김일성대원수님의 영광찬란한 항일혁명투쟁사를 잊지 않을것이며 그이를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실것이다.

조국을 찾아주시 위대한 대원수님의 업적은 또 한분의 절충한 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어 세기를 이어 더욱 빛 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민족의 령수로 높이 모시였기에 우리 겨레가 터쳐던 해방만세의 함성은 통일의 환호성으로 삼천리강토를 진감할것이다.

본사기자

평양타조목장 개건현대화공사 완공, 준공식 진행

조선로동당의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훌륭히 개건된 평양타조목장이 준공되였다.

조선대양총회사와 평양타조목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자력갱생의 투쟁기풍으로 목장을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굴지의 타조생 산기지로 전변시켰다.

독특한 건축양식을 자랑하며 번듯하게 개건된 목장에는 타조기기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여러종의 생산건물과 110여개의 타조우리, 과학기술보급실, 체육관 등이 새로 일떠 섰다.

또한 타조고기 가공공장, 알개우기실을 비롯한 10여개 대상의 면모가 일신되어 종업원들이 보다 문화위생적인

환경에서 생산과 경영활동을 벌려나갈수 있는 조건이 그 쏠려 갖추어졌다.

평양타조목장이 종합적이며 현대적인 생산 및 가공기 로 꾸러짐으로써 타조가공업 의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오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개건현대화된 평양타조목장 준공식이 9일 에 진행되였다.

준공사를 광영호 조선대양총회사 총사장이 하였다.

연설자는 평양타조목장 개

건현대화공사의 완공은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 위한 기념비적창조물로 일떠 세워주시려 끝없는 로고와 심혈을 바쳐오신 절세위인들의 애민헌신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만리마시의 전형들이 발휘한 창조정신, 투쟁분배로 오늘의 대진군의 전열에서 힘차게 나아갈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아담하고 문화적인 생산건물들이 즐비하게 늘 어선 목장을 돌아보았다.

본사기자



새로 개건현대화된 평양타조목장

《국가의 존엄은 국력으로 지켜야 한다》

로씨야인사들 공동담화 발표

로씨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현대성구루빠 책임자 위팔리 케베제브와 《붉은별 TV》 책임주필 안드레이 웨르제브가 적대세력들의 책동에 대처한 공화국의 자위적조치들을 지지하여 7일 《국가의 존엄은 국력으로 지켜야 한다》라는 제목의 공동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다음과 같이 강조 하였다.

최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진행된 위력시위들과 시찰사격들은 자위적국방 력을 보다 강화할수 있게 한 중요한 계기들로 되었으며 이것은 조선반도정세를 악화시키려는 적대세력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광범한 국제사회는 조선이 취한 결단성있는 조치들과 날로 강해지는 국력에 대해 공감과 경탄을 표시하고있다.

그러나 미국은 남조선에 최신무장장비들을 끌어들이고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아 조선반도정세를 긴장상태에 로 몰아가고있다.

자기 나라 주변의 령도와 령해에서 주변국가를 위협하는 군사연습이 벌어지고있는 것을 가만히 앉아 보지만 하는 나라는 아마 없을것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 공화국의 존엄을 해치려드는

세력들의 행위가 더욱 로팔 화될수록 자위적국방력강화를 위한 공화국의 조치들은 계속 따라서게 될것이다.

우리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책동을 단호히 규탄한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적대행 위들을 단호히 지지하여야 한다.

본사기자



◆고려 후반기와 조선봉건정부 초기에 우리 나라와 중국의 해안지대에 침입하여 략탈민행을 감행하던 일본 해적들을 가리켜 왜구라고 하였다. 왜구들은 주로 쓰시마, 북규슈해안을 비롯한 조선반도와 가까운 섬들과 해안지대에 근거지를 정하고 우리 나라와 중국해안지대에 침입하여 재물을 략탈하거나 사람들을 죽이고 략치해가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로골화되는 왜구들의 침입에 고려정부와 조선봉건정부는 쓰시마에 대한 원정을 단행하여 왜구들을 징벌하였다. 특히 1419년에

있는 제2차 쓰시마원정시 조선함대는 수많은 적을 살상포로하였으며 수많은 왜구의 배와 살림집을 소각 해버렸다. 이에 절절한 왜구들은 귀순과 복종을 서약하면서 조선에 거류하여 무역을 할수 있게 승인해줄것을 간청하였다. 조선봉건

정부는 왜구들을 회유포섭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1423년에는 부산포, 병이포에, 1426년에는 염포에 왜구들이 거류하면서 무역을 진행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세살때 버릇여든까지 간다고 했다. 부산포, 병이포, 염포(일명 3포)에 거류한 토

착왜구들은 해적행위를 일삼던 버릇을 못 고치고 우리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1510년에 있는 3포왜인들의 반동이 그 하나이다. 토착왜구들은 섬나라의 간 특한 기질로 조선에서 막대한 물 질적리득을 보았을뿐아니라 일본

의 조선침략준비를 도와 조선봉건 정부에 대한 정략행위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남조선에서 《자한당》이 《토착왜구당》으로 락인적혀 민심의 저주와 배격을 받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이 《경제침략》이라 일컫는 일본의 횡포한 경제보

복행위를 두고 《지금은 반일이 아니라 친일을 할 때이다.》고 떠들면서 《우리 일본정부》라고 부르는 쓸개바진자들이 모인 집단이 바로 《자한당》이다. 온갖 부정부패로 사리사욕을 채우면서 일본이 제정의 도구로 활용하려 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보존해야 한다고 녀드리질을 하는 것 역시 《자한당》이다. 인민들이 철폐를 요구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것이 지난 시기 3포에 틀고앉아 갖은 못된짓만 골라하던 일본해적들의 행위와 무엇이 다른가. 남조선인민들이 《자한당》에 《토착왜구당》이라고 별명을 단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평양타조목장에 새로 꾸러진 과학기술보급실

흔히 사람들은 작고 보잘것 없

는것을 모래알에 비견곤 한다. 그러나 거창하고 웅장한 대상

들을 모래알에 비겨 이야기한다면 그 말의 의미에 대해 다시금

주제사상탑이 바라보이는 평양의 대동강을 유람할수 있게

한번에 1230여명의 손님들이 민족음식과 함께 세계적으로 이

름난 요리들도 봉사받으며 풍치 수려한 대동강을 유람할수 있게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언제인가 대동강에서 배를 타고 평양

제 일 기 뽐 일 이 라 고 하 시 며

다고, 대동강에서 유람조직과 관광조직을 잘하여 인민들에게 보

다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하시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도 대동강에 현대적인 봉사선을 띄워

놓고 인민들이 리용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여러가지 봉사시설들과 문화

후생시설들을 갖춘 종합봉사선 차려 설계도 지도해주시고 건조

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 었을뿐 아니라 배의 이름을

《무지개》호로 친히 명명하여 주시었다.

주제104(2015)년 9월 어느날 새로 건조한 종합봉사선 《무지

개》호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배를 타고 대동강

을 유람하면서 웃고 떠들 인민들을 생각하니 쌓였던 피로가 가

고, 이렇게 인민들에게 안겨 줄 재물을 한가지, 한가지 마

고려시면서 이 《무지개》호는 우리가 인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에 비해볼 때 정말 한알의 작 은 모래알이나 같다고, 이런 모

래알들을 모아 큰 산을 쌓아야 한다고 하시었다.

모래알과 큰 산! 대동강에 종합봉사선이 뜬 때

로부터 매일 많은 사람들이 이 배를 리용하고있다.

그들은 저마다 《멋있는 배》, 《훌륭한 배》, 《특색있는 배》

라고 하면서 기쁨과 만족감을 표 시하고있다.

비록 배 한척이지만 인민의 행 복을 꽃피우는 얼마나 큰 배인가.

그런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종합봉사선을 자그마한 모래알에

비기신것이다. 인민을 위한 일에서 언제나

만족을 모르시는 경애하는 원 수님께서만이 하실수 있는

표현이시다. 대동강기슭을 따라 오르내리며

보노라면 그 주변 풍경은 불만 하다. 고려시기의 유명한 시인

김향원이 대동강의 아름다운 경치에 취하여 《긴 성벽기슭으

로는 강물이 도도히 흐르고 넓은 벌 동쪽에는 점점이 산이 있네》

라는 시구를 써서 오늘날까지 전해 져오고있는데 그때와는 비교할수

없게 현대적으로 변모된 대동강 주변의 모습이다.

주제사상탑, 평양대극장, 인민 대학수당, 양각도국제호텔, 창전

거리, 미래과학자거리, 통라인민 유원지, 5월1일경기장, 평양대동

강수산물시장, 류경원... 더위가 계속되는 지금 매일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대동강반 에 위치한 문수물놀이장을 찾아

와 웃고 떠들며 달아오른 몸을 식히고있다. 이 문수물놀이장 하

나에도 령도자의 애민헌신의 무 수한 땀방울들이 스며있다.

문수물놀이장건설을 맡았던 한 설계가의 말에 의하면 그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언제 주무 시는지 알수 없었다고, 자기들

이 올린 형성안을 보아주시는 시간 은 자정이 훨씬 넘은 새벽시간들

이었는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밤새 형성안을 보아주시고 이른 아침

에도 또다시 건설장을 찾곤 하시였 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

아주신 형성안이 113건이나 된다 고, 매일 경애하는 원수님께 형

성을 보고드리고 그이의 결에서 지도를 받다나니 자신을 비롯한

설계가들도 언제 113건이 되었는 지 몰랐다고 하였다.

113건! 참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

련해가시는 인민을 위한 하나 하나의 《모래알》에는 이런 크

나큰 심혈과 로고가 깃들어있는 것이다.

하다면 이런 《모래알》들을 모아 《큰 산》을 쌓자면 얼마

나 크나큰 로고가 바쳐져야 하 는것인가.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지금 우리가 인민들의 문화정 서생활을 위한 적지 않은 대상건

조를 진행하고있는데 현재 조건 이 특별히 좋고 여유가 있고 풍

족하여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제 일 좋은 우리 인민을 하루빨리

사회주의문명의 최고봉에 올려서 우리는 당의 확고한 결심과 강렬

한 의지에 의하여 만년을 무릅쓰 고 일떠세우는 하나하나의 창조

물이라고. 진정 그 《모래알》들이 생

기고 또 생겨 이 땅우에는 인민을 위한 눈부신 전번의 새 모습들이

펼쳐지고있는것이다. 인민에 대한 불같은 사랑, 인

민이 바라다면 하늘의 별도 따오 고 돌우에도 꽃을 피우어 한다는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셨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자신의

헌신과 심혈이 깃든 그 모든것을 작은 모래알로 보시며 보다 휘

황할 래일을 앞당겨오시려 불철 주야의 강행군길을 이어가신다.

그이께서 《모래알》들을 하나 하나 마련하여 쌓아가시는 《큰

산》, 그것은 인민이 만복을 누리는 사회주의의 참모습인

것이다. 한철진



나라의 곳곳에 일떠선 현대적인 창조물들은 인민을 위하여 봉사부

가 안이온 결실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그 모든것이 인민의

마음에 드는지,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이 없었는지

마음쓰시며 사소한 부족점이라도 있을세라 자신이

《손님》이 되어보기도 하시었다.

마시령은 산이 많은 공화국에서 무수한 령도층의 하나이다.

산세가 험하고 수림이 우거져 말

도 령을 넘기가 힘들어 뛰어갔다 고 그 이롭도 마

시령인 인적드문 그곳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삼복

의 추위와 한겨울의 추위도 마다 하지 않았고

바로 이곳에 인민을 위한 대중체육관까지 건

주제102(2013)년 12월말 완공된 마시령스키장건설

을 다시금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마시령지구의 특

이런것을 찾아서

지나해 2월초 어느날 깊은 밤 평양시내의 거리로 한

무궤도전차가 달리고있었다. 평양무궤도전차공

장에서 생산한 새형의 무궤도전차의 첫

이것을 인민들이 리용할 무궤도전차에 미흡한

점이 있을세라 자신이 라보아야 마음을 놓겠다고

하시며 다시금 무궤도전차에 오르

신것이었다. 무궤도전차를 타고니 편안

하고 마음이 간다고, 완충장치도

좋고 진동과 소음도 없으며 속도도

빠르고 안전하다고 하시면서 통라인

민유원지개발사업은 우리 인민들에게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

대번에 없애주신 《골치거리》

주제 102(2013)년 4월 어느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개건중에 있는 양 각도축주경기장을 찾으신것이다.

한동안 경기장주석단쪽을 바라보 시던 그이께서는 양각도축주경기

장 주석단이 너무 크다고 하시면서 경기장주석단은

광장주석단과는 다른 석단쪽이 모든 면에서 경기장에

어울리지 않아 시공자들에게 《골 치거리》로 되었던 문제를

대번에 없애주시는것이

였다. 한편으로 들어가시던 그이께서

현관부에 차현관을 만들어놓는데

대해 지적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할때 대하여 이르시었다. 사실 치과병원에

는 현관부에 차현관을 만들어놓는데

대해 지적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할때 대하여 이르시었다. 사실 치과병원에

는 현관부에 차현관을 만들어놓는데

대해 지적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할때 대하여 이르시었다. 사실 치과병원에

는 현관부에 차현관을 만들어놓는데

대해 지적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할때 대하여 이르시었다. 사실 치과병원에

는 현관부에 차현관을 만들어놓는데

대해 지적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할때 대하여 이르시었다. 사실 치과병원에

는 현관부에 차현관을 만들어놓는데

대해 지적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할때 대하여 이르시었다. 사실 치과병원에

는 현관부에 차현관을 만들어놓는데

대해 지적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할때 대하여 이르시었다. 사실 치과병원에

는 현관부에 차현관을 만들어놓는데

대해 지적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할때 대하여 이르시었다. 사실 치과병원에

는 현관부에 차현관을 만들어놓는데

대해 지적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할때 대하여 이르시었다. 사실 치과병원에

는 현관부에 차현관을 만들어놓는데

대해 지적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할때 대하여 이르시었다. 사실 치과병원에

는 현관부에 차현관을 만들어놓는데

대해 지적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할때 대하여 이르시었다. 사실 치과병원에

는 현관부에 차현관을 만들어놓는데

대해 지적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할때 대하여 이르시었다. 사실 치과병원에

는 현관부에 차현관을 만들어놓는데

대해 지적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할때 대하여 이르시었다. 사실 치과병원에

인민들의 편의를 보장하는 방향에서

주제 102(2013)년 4월 어느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개건중에 있는 양 각도축주경기장을 찾으신것이다.

한동안 경기장주석단쪽을 바라보 시던 그이께서는 양각도축주경기

장 주석단이 너무 크다고 하시면서 경기장주석단은

광장주석단과는 다른 석단쪽이 모든 면에서 경기장에

어울리지 않아 시공자들에게 《골 치거리》로 되었던 문제를

대번에 없애주시는것이

였다. 한편으로 들어가시던 그이께서

현관부에 차현관을 만들어놓는데

대해 지적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할때 대하여 이르시었다. 사실 치과병원에

는 현관부에 차현관을 만들어놓는데

대해 지적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할때 대하여 이르시었다. 사실 치과병원에

는 현관부에 차현관을 만들어놓는데

대해 지적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할때 대하여 이르시었다. 사실 치과병원에

는 현관부에 차현관을 만들어놓는데

대해 지적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할때 대하여 이르시었다. 사실 치과병원에

는 현관부에 차현관을 만들어놓는데

대해 지적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할때 대하여 이르시었다. 사실 치과병원에

는 현관부에 차현관을 만들어놓는데

대해 지적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할때 대하여 이르시었다. 사실 치과병원에

는 현관부에 차현관을 만들어놓는데

대해 지적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할때 대하여 이르시었다. 사실 치과병원에

는 현관부에 차현관을 만들어놓는데

대해 지적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할때 대하여 이르시었다. 사실 치과병원에

는 현관부에 차현관을 만들어놓는데

대해 지적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할때 대하여 이르시었다. 사실 치과병원에

는 현관부에 차현관을 만들어놓는데

대해 지적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할때 대하여 이르시었다. 사실 치과병원에

는 현관부에 차현관을 만들어놓는데

대해 지적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할때 대하여 이르시었다. 사실 치과병원에

는 현관부에 차현관을 만들어놓는데

대해 지적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할때 대하여 이르시었다. 사실 치과병원에

는 현관부에 차현관을 만들어놓는데

대해 지적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할때 대하여 이르시었다. 사실 치과병원에

나라의 곳곳에 일떠선 현대적인 창조물들은 인민을 위하여 봉사부

가 안이온 결실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그 모든것이 인민의

마음에 드는지,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이 없었는지

마음쓰시며 사소한 부족점이라도 있을세라 자신이

《손님》이 되어보기도 하시었다.

마시령은 산이 많은 공화국에서 무수한 령도층의 하나이다.

산세가 험하고 수림이 우거져 말

도 령을 넘기가 힘들어 뛰어갔다 고 그 이롭도 마

시령인 인적드문 그곳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삼복

의 추위와 한겨울의 추위도 마다 하지 않았고

바로 이곳에 인민을 위한 대중체육관까지 건

주제102(2013)년 12월말 완공된 마시령스키장건설

을 다시금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마시령지구의 특

이런것을 찾아서

지나해 2월초 어느날 깊은 밤 평양시내의 거리로 한

무궤도전차가 달리고있었다. 평양무궤도전차공

장에서 생산한 새형의 무궤도전차의 첫

이것을 인민들이 리용할 무궤도전차에 미흡한

점이 있을세라 자신이 라보아야 마음을 놓겠다고

하시며 다시금 무궤도전차에 오르

신것이었다. 무궤도전차를 타고니 편안

하고 마음이 간다고, 완충장치도

좋고 진동과 소음도 없으며 속도도

빠르고 안전하다고 하시면서 통라인

민유원지개발사업은 우리 인민들에게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

주제 102(2013)년 4월 어느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개건중에 있는 양 각도축주경기장을 찾으신것이다.

한동안 경기장주석단쪽을 바라보 시던 그이께서는 양각도축주경기

장 주석단이 너무 크다고 하시면서 경기장주석단은

광장주석단과는 다른 석단쪽이 모든 면에서 경기장에

어울리지 않아 시공자들에게 《골 치거리》로 되었던 문제를

대번에 없애주시는것이

였다. 한편으로 들어가시던 그이께서

현관부에 차현관을 만들어놓는데

대해 지적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할때 대하여 이르시었다. 사실 치과병원에

는 현관부에 차현관을 만들어놓는데

대해 지적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할때 대하여 이르시었다. 사실 치과병원에

는 현관부에 차현관을 만들어놓는데

대해 지적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할때 대하여 이르시었다. 사실 치과병원에

는 현관부에 차현관을 만들어놓는데

대해 지적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할때 대하여 이르시었다. 사실 치과병원에

는 현관부에 차현관을 만들어놓는데

대해 지적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할때 대하여 이르시었다. 사실 치과병원에

는 현관부에 차현관을 만들어놓는데

대해 지적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할때 대하여 이르시었다. 사실 치과병원에

는 현관부에 차현관을 만들어놓는데

대해 지적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할때 대하여 이르시었다. 사실 치과병원에

민족단합의 대헌장을 마련해주시어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조국통일운동을 이끄시는 전기간 민족대단결로선을 일관하게 틀어쥐시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바치셨습니다.

1990년대 전반기에 들어서면서 제국주의연합세력은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공화국을 어떻게 하나 암살하기 위해 남조선과 그 주변에 방대한 무력을 집결시키고 침략적인 군사연습을 벌려놓았으며 군사대상물들에 대한 《특별사찰》을 강요하면서 공화국의 자주권과 최고이익을 엄격히 위협해나섰습니다.

조성된 정세는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민족의 머리에 드리운 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며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갈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인 주체82(1993)년 4월 6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에서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기 위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발표하시었습니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에는 민족의 대단결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철세의 애국자의 고귀한 한평생이 그대로 비껴있었다.

이 강령은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시기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한자한자 작성하시고 발표하시어 전제 조선민족을 반일민족통일전선에 굳게 묶어세우시고 온 민족의 총동원력으로 조국해방의 역사적업무를 이룩하신것처럼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를 하나로 묶어세워 나라의 평화를 지키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업무를 성취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이 어련 애국애족의 강령이다. 이 강령에는 민족대단결의 목표와 리념적기초, 단결의 원칙과 방도가 전면적으로 명시되어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에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전민족이 대단결합체 대한 탁월한 사상을 명시하시고 전민족의 대단결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범민족통일국가를 창립할데 대한 민족대단결의 총적목표와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단결합체 대한 민족대단결의 리념적기초 그리고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업위에 모든것을 봉족시키며 대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대하여 명철하게 밝혀주시었다. 또한 동족사이에 분열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체 정쟁을 중지하고 북과 남이 서로 신뢰하고 단합합체 대한 문제,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며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하여 배척하지 말고 조국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 나갈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대단결의

방도들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제시하시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그 리념의 숭고성과 논리의 심오성, 단결대상의 광복성과 실현방도의 현실성으로 하여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통일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 계도와 소속, 거주지역과 재산유무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접수될수 있는 가장 광명정대한 민족단합의 정치대강이며 조국통일의 대헌장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통일문제를 가장 합리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민족단합의 총서이며 통일대강인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제시하여주시므로써 우리 민족은 뚜렷한 목표와 방향, 확고한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었다.

참으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민족대단결의 귀중한 전통을 마련하신 아버지수령님께서 해방후 새 사회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민족대단결로선을 구현해오시는 과정에 이룩하신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발표하시어 우리 민족은 민족대단결의 새로운 리징표를 받아안게 되였으며 조국통일운동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이룩되게 되었다.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의 심포는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역사적업무를 기어이 실현할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놓은 일대 사변으로 되었다.

공화국의 각 정당, 사회단체들은 성명과 담화들을 발표하여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에 전폭적인 지지찬동을 표시하였으며 그속에서 노래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가》도 창작되어 널리 보급되게 되었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통일의 큰 열쇠》, 《통일의 지름길》, 《민족구원의 위대한 경륜》, 《7천만겨레의 오늘의 좌표와 메일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는 민족통일의 대강》이라고 하면서 신심뜨는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해외동포들도 이 강령을 두고 《온 겨레를 통일일로 부르는 화해와 단합의 기치》, 《애국애족의 강령》이라고 하면서 조국통일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나갔다.

참으로 조국통일3대헌장,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과 더불어 조국통일3대헌장의 주요내용을 이루는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밝혀주시어 민족자주통일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시어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오성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조국통일을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셨습니다. 그의 최대의 념원은 갈라진 우리 겨레가 기어다 만나 행복하게 사는것이였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일군들에게 권유, 직녀가 만나는 전설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뜻깊은 사연도 우리 겨레는 길이 전하고있다.

주체83(1994)년 7월의 못 잊을 그 밤.

조국통일을 위해 크나큰 사색을 기울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원으로 나 오시어 일군들에게 오늘밤에는 옛말을 하겠다고 하시며 음력으로 7월 7일인 칠월칠석에 권유와 직녀가 만나는 전설이야기를 들려주시었다.

권유와 직녀가 만나는 이야기를 마치신 그이께서는 이윽고 우리 겨레가 분단민족으로 살고있는 고통에 대하여, 조국통일을 꼭 이룩하여야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었다.

갈라져 사는 겨레의 고통에 대하여 얼마나 깊이 심려하시였으면 일군들에게 이런 전설을 들려주셨겠는가. 여기에는 외세가 강요한 민족분열의 역사를 단호히 끝장내고 겨레에게 조국통일을 기어이 선물로 안겨주시려는

숭고한 뜻과 굳은 의지가 어려 있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 밀림속에 우뚝불이 타는 깊은 밤이면 대원들과 함께 온하수가 비껴간 남쪽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속에 《시향가》를 불렀다고 하시면서 조용히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시었다.

내 고향을 떠나올 때 나의 어머니 문앞에서 눈물 흘리며 잘 다녀오라고 하시면 말씀 아귀에 쟁쟁해...

일군들도 눈물을 적시며 노래를 따라불렀다.

수령님께서 부르신 노래 《시향가》.

이름난 새벽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과 관련한 역사적문건에 자신의 존함과 날자를 한자 한자 힘주어 쓰시었다.

《 김 일 성 1994. 7. 7. 》

한 일군이 집무실에 들어섰을 때 수령님께서는 우리 겨레가 일일천주로 고대하던 조국통일은 마야흐로 눈앞에 다가왔다고, 조국통일은 내가 우리 인민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확신있게 고시하시었다.

이처럼 한평생 민족과 통일을 위해 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각도 조국통일을 위해 바치시었다.

본사기자 한일혁

전후의 전반적정세는 비록 정전된 되였어도 외세와 그 앞잡이들의 로골화되는 침략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의연히 긴장하였다.

이러한 현실은 공화국정부로 하여금 전쟁의 후과를 가시며 내외호전세력의 새 전쟁도발책동에 대비하여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추진할 새로운 대책을 강구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전후 공화국이 제시한 조국통일방침에서 기본은 나라와 민족의 통일은 그 어떤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선인민자신이 힘의 방법으로 실현하는것이였다. 즉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였다.

당시의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 통찰한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8.15해방 10돐을 맞으며 진행된 경총대회에서 하신 역사적인 보고에서 공화국정부가 시종일관 견지해온 조국통일을 위한 원칙적립장을 재천명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서에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북남조선인민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조선문제토의를 진행하며 자기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민주주의적통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과 정전을 공고한 평화로 전환시키며 대한 문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와 남조선 《국회》 사이의 협상문제, 자유래왕의 보장문제, 경제,

문화, 과학, 예술교류의 진행과 대표자회의소집문제 등을 밝히시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방도까지 제시하시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45(1956)년 4월에 하신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서 또다시 자주적 조국통일추진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내놓으시는 주동적 인지를 취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과 남의 모든에 국적정당, 사회단체, 개별적인 사람들의 연합을 실현하고 북과 남

통일애국의 령정을 더듬어 (3)

전후 적극적인 통일방책들을 제시하여

사이에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와 인사래왕 및 통신의 교환을 실현하며 이를 위하여 북남조선정당, 사회단체연석회의 또는 개인 보고에서 공화국정부가 시종일관 견지해온 조국통일을 위한 원칙적립장을 재천명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서에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북남조선인민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조선문제토의를 진행하며 자기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민주주의적통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과 정전을 공고한 평화로 전환시키며,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단면하게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통일문

제를 조선사람자체의 의사에 의하여 해결하는것, 그리고 조선문제와 관련된 국제회의를 소집하고 그를 통하여 평화통일의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는것 등이였다.

공화국의 이러한 방침들은 북남사이의 호상 리해와 접촉에 기초하여 협상의 방법으로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길을 밝힌 현실적이고도 적극적인 제안이였다. 협상의 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할데 대한 방침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

람이라면 누구나 접수호응할수 있는 광명정대하고 합리적인 제안을 하였다.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에서는 이러한 광명정대하고 합리적인 조국통일방안에 기초하여 평화통일을 다그치기 위한 구체적 인 대책들을 천명한 력사적선언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하여》를 발표하였다.

선언에서는 조선문제의 종국적결과는 조선인민자체의 민주주의적의사에 기초하여 실현하여야 하며 조선의 통일정부는 전체 조선인민의 총선거리에 의하여 수립되어야 한다는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선언에서는 정견, 신앙의 차이를 묻지 않고

미군유지비인상을 강박하는 미국에 항의

남조선언론이 미군유지비인상 강박하는 미국에 항의하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미국에 항의

남조선언론이 미군유지비인상 강박하는 미국에 항의하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동맹19-2》대신 《후반기 한미연합지휘소훈련》으로 간판이 바뀌어 단 합동군사연습이 광란적조로 벌어지고있다.

이것은 동족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민족의 화해단합과 조선반도의 평화변명을 바라는 온 겨레에 대한 참을수 없는 도전이다.

연습의 명칭이나 바꾼다고 하여 훈련의 침략적성질이 달라지거나 공화국에 대한 적의 숨겨지는것이 아니다.

공화국은 이미 남조선당국에 외세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할데 대해 거듭 경고하였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이번에도 《울지 프러덴 가디언》이라는 간판만 바꾸었을 뿐 그 형식과 내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침략전쟁연습을 끝끝내 강행하는것으로 대담해나선것이다.

남조선호전세력은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실제병력과 장비의 기동이 없는 지휘소 훈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검증연습》이라고 하면서 그 침략적정체를 가리워보려 하고있지만 그것은 명백히 기습타격과 대규모병력의 신속투입으로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타도하기 위한 위협천만 한 침략전쟁시연회이다. 이번 연습에 점령지역에 대한 치안, 질서 유지 등을 수행하는 《안정화작전》내용도

배찌가 들어있는것만 보아도 연습의 적대적성격을 잘 알수 있다.

북과 남은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에서 조선반도에서의 철에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난해 9월의 평양수뇌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리해합의서를

여주는 실례의 하나이다. 올해에도 남조선당국은 미국과 함께 조선반도유사시에 대비한 연합공중탐색구조훈련인 《퍼시픽 센더》를 또 다시 벌려놓았으며 4월말부터 두주일동안 《연합전대 종합훈련》이라는 새로운 간판으로 미공군과 오스트랄리아공군부대까지 남조선에 끌어들여 공화국을 겨냥한 공중폭발장난소동을 벌려놓았다.

특히 남조선당국은 지난 3월 《키 리볼브》합동군사연습의 간판만 바꾼 《동맹

19-1》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으나 이 합동군사연습에 남조선측에서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특별공군작전사령부, 국방부직속 합동부대가, 미국측에서는 《한》미련합사령부와 남조선주둔 미군사령부, 인디아-레평양지역 미군총사령부를 비롯하여 유사시 조선전선에 투입될 지휘기관 관계자들과 부대들이 참가하였다. 이에 대해 내외인론들과 전문가들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합동군사연습의 규모와 기간을 축소하여 진행하였다고 하지만 훈련을 통해 북에 대해 압박기조를 강화한것으로 보이며 연습이 추구하는 목적과 내용도 《키 리볼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과

다름없다고 평하였다.

남조선에서는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은폐된 적대행위들도 끊임없이 감행되고 있다.

남조선당국은 《훈련을 발표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 《연합훈련을 전략적소통차원에서 과다하게 홍보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외세와 결합한 침략공작연습을 체계적으로 그칠새없이 버리고있다.

남조선주둔 미군사령관이 지난 5월 하와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미연합방

위태는 한지도 약화되지 않았고 올해에만도 100차이상의 연합훈련이 실시되었다.》고 떠벌인 사실은 남조선당국이 외세와 함께 공화국을 겨냥한 은폐된 합동군사연습을 얼마나 빈번히 벌리고있는가를 여실히 증명해준다.

남조선당국은 북남선언들과 합의서를 반복해 갖고 밝고 동족을 겨냥한 무력충격행동에도 계속 광분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은 《2019년 국방업무계획》과 《2019-2023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공화국을 《선제타격》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미국에서 스텔스전투기(F-35A)를 편이 끌어들이고있다.

그런가 하면 올해 정초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한 특근지상작전사령부를 조직한데 이어 스텔스전투기(F-35A)와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운용하는 부대들과 공화국내부에 신속히 침투하여 주요대상들을 타격하기 위한 《신속대응사단》, 《선제작전대대》 등을 내오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은 《한미연합군사연습을 벌려놓았으며 4월말부터 두주일동안 《연합전대 종합훈련》이라는 새로운 간판으로 미공군과 오스트랄리아공군부대까지 남조선에 끌어들여 공화국을 겨냥한 공중폭발장난소동을 벌려놓았다.

특히 남조선당국은 지난 3월 《키 리볼브》합동군사연습의 간판만 바꾼 《동맹

19-1》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으나 이 합동군사연습에 남조선측에서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특별공군작전사령부, 국방부직속 합동부대가, 미국측에서는 《한》미련합사령부와 남조선주둔 미군사령부, 인디아-레평양지역 미군총사령부를 비롯하여 유사시 조선전선에 투입될 지휘기관 관계자들과 부대들이 참가하였다. 이에 대해 내외인론들과 전문가들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합동군사연습의 규모와 기간을 축소하여 진행하였다고 하지만 훈련을 통해 북에 대해 압박기조를 강화한것으로 보이며 연습이 추구하는 목적과 내용도 《키 리볼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과

다름없다고 평하였다.

남조선에서는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은폐된 적대행위들도 끊임없이 감행되고 있다.

남조선당국은 《훈련을 발표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 《연합훈련을 전략적소통차원에서 과다하게 홍보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외세와 결합한 침략공작연습을 체계적으로 그칠새없이 버리고있다.

남조선주둔 미군사령관이 지난 5월 하와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미연합방

위태는 한지도 약화되지 않았고 올해에만도 100차이상의 연합훈련이 실시되었다.》고 떠벌인 사실은 남조선당국이 외세와 함께 공화국을 겨냥한 은폐된 합동군사연습을 얼마나 빈번히 벌리고있는가를 여실히 증명해준다.

칠월칠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1959년 10월 26일부터 28일 사이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6차 회의에서는 남조선으로부터 일체의 국군대가 철거한 후 일정한 기간내에 북남조선인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완전히 보장되는 조건에서 전조선 자유선거를 실시할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면서 전조선 자유선거실시문제를 포함한 하여 나라의 평화적통일과 관련한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하여 북남조선의 국회, 정부 혹은 각 정당, 사회단체들의 대표들로 구성된 상설위원회를 조직할것을 주장하였다.

회의에서는 또한 북과 남사이의 호상래왕과 편지거래를 자유롭게 실시하며 경제, 문화, 과학, 예술, 체육 및 기타 부분들의 호상 교류를 실현하며 그를 위하여 북남조선경제개발 및 교류상설위원회를 설치할것을 제의하였다.

공화국의 이러한 주동적인 제안과 조치들은 당시의 조건에서 전체 조선민족의 념원을 반영하여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촉진시킬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면서 현실적인 방도였다.

공화국의 주동적인 평화화상 제안과 조치들, 그 실현을 위한 성의있는 노력에 의해 내외에서는 평화적통일기운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본사기자 김영진

남조선언론이 미군유지비인상 강박하는 미국에 항의하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본사기자

날로 로골화되는 일본의 파렴치한 행위

최근 남조선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에 반발하여 폭발된 남조선 각계층의 반일 투쟁이 더욱 고조되고있다. 특히 남조선의 초, 중, 고등학교 교원단체들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남조선 각계층에서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반일투쟁을 더욱 고조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있다.

이들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와 정치적분제를 알려주는 것은 교사의 의무》라고 하면서 학생들에게 일본의 경제침략행위의 진의도와 위험성을 깊이 인식시켜주는 한편 학생들이 부모들과 함께 반일초분투행에 떨쳐나서도록 추동하고있다. 서울과 광주를 비롯하여 전교조와 《한국교총》 소속의 각 지역 교원들은 《일본수학여행》, 《일본학교들과 체결했던 교류활동단절운동》, 《일본상품불매운동》, 《친일분자들이 지은 교가교체운동》, 교수내용들에 남아있

는 《일본말을 우리 말로 바꾸기운동》 등 반일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면서 학생들과 사회 각계의 반일기운을 고조시키고있다. 지금 남조선 전 지역의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은 《일본이 잘못됐고 나쁘다고 생각한다》, 《어른들이 진행하는 투쟁을 통해 일본을 꼭 이기면 좋겠다》, 《일본제품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부모들과 함께 반일초분투행에 적극 참가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 각계에서는 《일본의 경제침략행위가 청소년들의 분노까지 일으켰다》, 《반일초분투행에 나선 아이들의 반일감정이 박근혜퇴진을 위한 초분투행태를 형성시킨다》고 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일본에 대한 인식을 바로 주기 위해서라도 반일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겠다고 하고있다. 이것은 과거죄악에 대한 사회적거침 우리 민족에게 잃어버린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려는 일본의 날강도적 침략행위에 대한 분노의 폭



일본 아베 정부 규탄 청소년 1000인 선언 및 청소년 행진 “경제전쟁 일으키는 아베정부를 쫓아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하라!”

얼마전 미국부성이 2011년 3월이후 평화국을 방문하였거나 충분한 리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미국에 대한 무사중립국을 불허하기로 하였다.

하여 지난해 9월 북남수뇌상봉당시 평양을 방문하였던 정치인들과 기업가들, 예술인들을 비롯한 3만 7 000여 명의 남조선주민들이 그 대상으로 되었다고 한다. 기업운영을 위해 개성공업지구에 드나든 중소기업인들과 금강산관광업정을 수행한 일반주민들도 무사중립국불허대상에 포함된다고 한다.

지금 남조선주재 미국대사관앞에는 여름방학을 맞아 미국에 가려는 《방북자》가족관련 류학생들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사람들이 피악벌을 속이 다시 짙은 사인들을 들고 길게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있다고 한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압박책동때문에 애매한 남조선주민들이 고통받게 된것이다. 이번 미국의 조치가 대조선적대시압박책동의 산물로

서 공화국에 대한 또 하나의 터무니없는 도발로 된다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앞에서는 《관계개선》을 의위고있지만 뒤에서는 여전히 대조선압박책동에 매달리는 이중적행태를 보이고있는 것이 바로 미국이다.

이번에 미국이 취한 무사중립국불허조치는 조선반도에서 북과 남의 접촉과 왕래를 차단하고 동족사이에서 신과 반목을 조장시키기 위한 미국의 고의적인 민족분리간첩책이다.

미국의 속심은 남조선의 민심이 현 《정권》을 배척하게 만들어 친미보수세력의 재집권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줄자는것이다.

이번 식으로 공화국에 대한 고립분쇄의 도수를 높이고려는 미국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이야말로 치졸하기 짝이 없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에 대

남조선에서 괴롭힌 일본의 경제보복조치를 반대하는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이 더욱더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이미 알려진것처럼 일본은 과거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외면한채 남조선대법원의 정당한 일제강점징용피해자배상판결을 놓고 적반하장으로 늘어보며 남조선에 경제보복의 칼날을 서슴없이 들이대고있다.

이들 계기로 남조선의 민주로총, 진보연대를 비롯한 사백여개의 단체들이 항의집회들을 연이어 열고 일본당국의 경제침략행태를 단죄구판하고있으며 수많은 상인과 자영업자, 학생, 가정주부들을 비롯한 각계층 주민들이 벌이는 일본상품배척투쟁, 친일잔재청산운동이 도처에서 매일과 같이 벌어지고있다.

남조선인민들, 나아가 조선민족을 또다시 식민지노예로 만들려는것이 일본반동들의 변하지 않은 검은 속심이다.

오늘 남조선에서 힘차게 벌어지는 반일투쟁은 단순히 일본의 경제침략행태에 대처하여 돈 몇푼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간악한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지키기 위한 심각한 투쟁이라고 할수 있다.

우리 겨레는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결코 세기를 이어나가며 조선민족에게 저지르고있는 일본의 범죄적행태를 친백배로 결산할것이며 거이 사회와 배상을 받아내고야말것이다.



일본 아베 정부 규탄 청소년 1000인 선언 및 청소년 행진 “경제전쟁 일으키는 아베정부를 쫓아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하라!”

고려되고 이 문서리치는 죄악에 대해 《사실과 어긋난다》, 《성노예가 아니라 《매춘부》, 《사회학 생각이 될까말까도 없다》고 하면서 전면 부정해내고있다. 일본이 《평화헌법》을 전정헌법으로 개악하기 위해 미쳐달리고있으며 국제적으로 사상이 금지된 구일본군의 전병기를 국제무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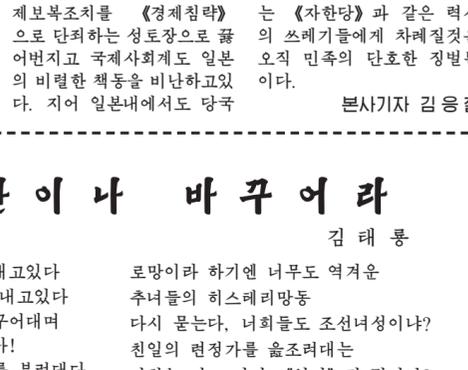
고려되고 이 문서리치는 죄악에 대해 《사실과 어긋난다》, 《성노예가 아니라 《매춘부》, 《사회학 생각이 될까말까도 없다》고 하면서 전면 부정해내고있다. 일본이 《평화헌법》을 전정헌법으로 개악하기 위해 미쳐달리고있으며 국제적으로 사상이 금지된 구일본군의 전병기를 국제무대에

고려되고 이 문서리치는 죄악에 대해 《사실과 어긋난다》, 《성노예가 아니라 《매춘부》, 《사회학 생각이 될까말까도 없다》고 하면서 전면 부정해내고있다. 일본이 《평화헌법》을 전정헌법으로 개악하기 위해 미쳐달리고있으며 국제적으로 사상이 금지된 구일본군의 전병기를 국제무대에

이를 초월하여 동참하는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기해년의 을사오적》, 《도락재구》로 락인 받고있는 《자한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은 민심의 격렬한 반일투쟁에 대해 《감상적 민족주의》, 《철없는 아이들의 행동》, 《무지몽매한것들의 짓거리》로 모독해나섰다. 지어 《지금은 반일이 아니라 친일을 할때이다》, 《우리 일본》, 《우리 일본정부》라고 공공연히 떠들다못해 《엄마부대》와 같은 구우보수세력들을 내세워 《반일을 제치는 정부와 단체들은 아베와 일본에 사과하라》는 망발까지 꺼리낌없이 내뱉고있다. 조선사람의 피와 땀이란 꼬를만치고 없는 쓸개빠진 매국노들의 역겨운 추태로서 온 겨레의 분노를 자아내는 반민족적망동이 아닐수 없다.

저들의 장기집권야망을 실현하며 일본을 《동북아시아의 패권국가》로 만들어보려는 흉심밑에 남조선을 우습게 보고 그 희생물로 삼으려 하고있는것이 바로 현 일본당국이다.

지금 온 남조선땅은 일본의 파렴치하고 강도적인 경제보복조치를 《경제침략》으로 단죄하는 성토장으로 끓어번지고 국제사회에도 일본의 비렬한 책동을 비난하고있고 있다. 지어 일본내에서도 당국



일본 아베 정부 규탄 청소년 1000인 선언 및 청소년 행진 “경제전쟁 일으키는 아베정부를 쫓아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하라!”

로망이라 하기에 너무도 역겨운 추녀들의 히스레리망동 다시 묻는다, 너희들도 조선녀성이냐? 친일의 련정가를 읊조려대는 너희는 어느 나라 《엄마》란 말이나?

엄마란 신성한 이름 더럽히지 말라 너희들이 낳은 자식들마저 낫을 불린 《사죄》라는 요설로 민심을 모욕하지 말라 친일의 주름살 가득 메인 그 낯짝에 민심이 분노해 침을 뱉거니

간판이나 바꾸어라 엄마라는 그 이름 더는 모욕하지 말라 조선민족임을 스스로 부정한 미치광이들 《광녀부대》, 《친일부대》 이것이 너희들에게 꼭 어울리는 간판이다

외세굴종으로 차레진 쓰디쓴 대가

고 상전을 찾아가길 판인가 하신다. 미국의 이번 조치를 두고 남조선의 각계 인사들과 주민들속에서 《대통령과 당국을 운운하며 《대통령을 옹호하라》를 발급하겠다고 하고있다. 《남북경협 누굴 믿고 하나》, 《미국이 민족협력교류 그만두라는데 아니냐》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제

고려되고 이 문서리치는 죄악에 대해 《사실과 어긋난다》, 《성노예가 아니라 《매춘부》, 《사회학 생각이 될까말까도 없다》고 하면서 전면 부정해내고있다. 일본이 《평화헌법》을 전정헌법으로 개악하기 위해 미쳐달리고있으며 국제적으로 사상이 금지된 구일본군의 전병기를 국제무대에

숨통을 조이는 방위비분담금증액 《청구서》

지난 7월 남조선을 행각한 미국자관보좌관이 청와대와 국방부에 둘러 방위비분담금의 명목으로 지난 시기의 5배에 달하는 천문학적액수의 자금을 더 내라고 강박한 사실이 밝혀져 남조선에서 커다란 물의를 빚고있다. 8월에 들어와서도 미국방장관이 남조선에 날아와서 방위비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고 남조선당국을 협박했는가 하면 미국부성의 관계자들도 방위비분담금증액 문제는 미국이 명명백백하게 추진하는 문제들중의 하나라고 로골적으로 떠벌여했다.

현실이 보여주는것처럼 미국은 지금 방위비분담금증액의 명목으로 남조선인민들의 혈세를 더 많이 짜내려 하고있다. 이들은 남조선에 갖가지 탐욕적리추구를 위한 수탈의 대상, 제 마음대로 노여내고 부러먹을수 있는 노동으로 여기는 상진의 날강도적심보가 얼마나 오만무도하고 횡포한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지난 시기에도 남조선당국은 방위비분담금의 명목

으로 천문학적액수의 자금을 미국에 넘겨바치여왔다. 하지만 미국의 욕심은 끝이 없이 커져 이제는 지난 시기의 5배를 더 내라는 식으로 남조선당국을 압박하고 있는것이다.

미국이 남조선에 얼마나 모질것없는 존재로 여기고있으면 일본의 경제침략으로 대란리를 겪고있는 때에 동정과 뒤로는 고사하고 숨통을 더 조이는 방위비분담금 《청구서》만 연방 들이대고있었는가 하는것이다. 미행정부가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들에 방위비를 대폭 부담시키는 구상을 내놓고 그 첫 대상으로 남조선을 선택한것은 다름아닌 남조선당국의 굴종적인 처사가 불러온 재액이다.

미국의 오만무도한 방위비분담금강탈책동과 남조선당국자들의 친미굴종행위를 묵인한다면 남조선인민들은 더 큰 불행과 재난, 피해를 면할수 없게 될것이다. 오늘날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이 미국의 굴종적이며 불명예한 요구를 단호히 반대해격해나서고있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하다.

본사기자 김철민

부메랑이 된 《합치문제》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남조선당국이 《특정실종자》를 《북조선에 합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면서 그 무슨 《합치문제》해결을 떠들고있는것은 대조선적대분위기를 고착하여 불순한 정치적리득을 챙겨보자는 데 그 속심이 있다. 따지고보면 일본에서 아베처럼 《합치문제》를 떠들며 정치적리득을 본 정치가는 보기가 드물다. 아베가 일본정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자민당 간사장, 수상직에 오를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그가 1980년 대말부터 《합치문제》해결을 집요하게 내걸고 일본내 보수정서를 자극하였기때문이다. 이런 리유로 하여 아베는 안락으로 위기에 몰릴 때마다 상투적으로 《합치문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남조선당국이 《특정실종자》를 《북조선에 합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면서 그 무슨 《합치문제》해결을 떠들고있는것은 대조선적대분위기를 고착하여 불순한 정치적리득을 챙겨보자는 데 그 속심이 있다. 따지고보면 일본에서 아베처럼 《합치문제》를 떠들며 정치적리득을 본 정치가는 보기가 드물다. 아베가 일본정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자민당 간사장, 수상직에 오를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그가 1980년 대말부터 《합치문제》해결을 집요하게 내걸고 일본내 보수정서를 자극하였기때문이다. 이런 리유로 하여 아베는 안락으로 위기에 몰릴 때마다 상투적으로 《합치문

제》를 물고늘어지면서 정치적목적을 달성해보려 하였다. 아베가 수상자리를 차지한 후 집권총의 부정부패의혹이 터져나오는 등 정치적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합치문제》에 매달리는 수법으로 반대여론을 누르고 지지층을 결속하여 수상직을 여러번 련임할수 있었던 전분가들의 평처럼 《합치문제》는 공화국이 아니라 일본정내에 있기 때문이다. 등에 아이를 업고있으면서도 상관없는 앞집에 대고 아이를 내놓으라고 하는 식의 무례한 행동만 일삼는 현 일본당국은 이번 기회에 저들이 떠드는 《합치문제》의 진상을 밝히고 사죄하는것이 마땅하다.

이런 오늘의 일본이 과거의 일본 제국주의와 무엇이 다른가. 지금 사람들의 일본에 대한 참모습은 《대동아공영권》을 제치며 아시아나라들을 침략하고 전쟁마당에 너성들까지 성노예로 끌고나선 과거 일본을 떠올리고있는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죄악의 과거를 한사코 청산하지 않으려 하는 일본에게는 미래가 없다.

본사기자 박철남

천년속적을 끌어들이려는 역적행위

남조선에서 괴롭힌 일본의 경제보복조치를 반대하는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이 더욱더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이미 알려진것처럼 일본은 과거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외면한채 남조선대법원의 정당한 일제강점징용피해자배상판결을 놓고 적반하장으로 늘어보며 남조선에 경제보복의 칼날을 서슴없이 들이대고있다.

이들 계기로 남조선의 민주로총, 진보연대를 비롯한 사백여개의 단체들이 항의집회들을 연이어 열고 일본당국의 경제침략행태를 단죄구판하고있으며 수많은 상인과 자영업자, 학생, 가정주부들을 비롯한 각계층 주민들이 벌이는 일본상품배척투쟁, 친일잔재청산운동이 도처에서 매일과 같이 벌어지고있다.

남조선인민들, 나아가 조선민족을 또다시 식민지노예로 만들려는것이 일본반동들의 변하지 않은 검은 속심이다.

오늘 남조선에서 힘차게 벌어지는 반일투쟁은 단순히 일본의 경제침략행태에 대처하여 돈 몇푼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간악한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지키기 위한 심각한 투쟁이라고 할수 있다.

우리 겨레는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결코 세기를 이어나가며 조선민족에게 저지르고있는 일본의 범죄적행태를 친백배로 결산할것이며 거이 사회와 배상을 받아내고야말것이다.

고려되고 이 문서리치는 죄악에 대해 《사실과 어긋난다》, 《성노예가 아니라 《매춘부》, 《사회학 생각이 될까말까도 없다》고 하면서 전면 부정해내고있다. 일본이 《평화헌법》을 전정헌법으로 개악하기 위해 미쳐달리고있으며 국제적으로 사상이 금지된 구일본군의 전병기를 국제무대에

본사기자 김응철

시 간판이나 바꾸어라

로망이라 하기에 너무도 역겨운 추녀들의 히스레리망동 다시 묻는다, 너희들도 조선녀성이냐? 친일의 련정가를 읊조려대는 너희는 어느 나라 《엄마》란 말이나?

엄마란 신성한 이름 더럽히지 말라 너희들이 낳은 자식들마저 낫을 불린 《사죄》라는 요설로 민심을 모욕하지 말라 친일의 주름살 가득 메인 그 낯짝에 민심이 분노해 침을 뱉거니

간판이나 바꾸어라 엄마라는 그 이름 더는 모욕하지 말라 조선민족임을 스스로 부정한 미치광이들 《광녀부대》, 《친일부대》 이것이 너희들에게 꼭 어울리는 간판이다

본사기자 김철민

공화국의 귀중한 전략적 자원

공화국에는 적대세력들의 어떤 제재도 물거품으로 만들고 경제를 활성화하며 세계선진수준에도 도달할 수 있는 귀중한 전략적 자원이 있다.

수십년간 다져온 자립경제 토대와 능력있는 과학기술 역량, 자력갱생을 제철화하고 애국의 열의로 피끓는 영웅적인민들의 창조적힘이 바로 그것이다.

공화국의 귀중한 전략적 자원은 무엇보다도 수십년간 다지고다져온 자립경제 토대이다.

자립경제 토대는 공화국에서 사회주의준리의 기초이며 전진과 발전의 동력으로 되고 있다.

지나온 력사를 돌아보면 적대세력들은 자주의 성세인 공화국을 고립압박하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그러나 공화국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갖 도전과 압력 속에서도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한결같이 물러서지 않고 제발로 걸어가는 경제, 자기의 힘과 기술, 자기의 자

원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자립경제를 건설해놓았다. 하여 공화국은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 기적의 나라로 되었다.

오늘 적대세력들이 공화국에 대한 경제제재에 매어달리면서 어떻게 하나 굴복시키고 전진을 가로막아보려 하지만 자립경제의 막강한 토대에 의거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공화국의 앞길을 결코 막을 수 없다.

공화국의 귀중한 전략적 자원은 다음으로 국가가 품을여 키운 능력있는 과학기술 역량이다.

지금은 지식경제시대, 과학기술시대이다. 오늘날 해당 나라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은 그 나라의 종합적국력과 지위를 규정하는 지표의 하나로 되고 있다.

세계적인 국력경쟁에서도 과학기술경쟁이 기본으로 되고 있다. 과학기술경쟁에서 승자가 되자면 자체의 든든한 과학기술력량이 있어야 한다.

공화국에는 절세위인들께서 수십년동안 품들어 키워주

신 능력있는 과학자대군이 있다.

공화국에서 인재와 과학기술은 자립경제발전의 기본동력으로 되고 있다.

최근년간 공화국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일관하게 견지하고계시는 과학기술중시선과 전진과학기술인재화방침에 의하여 과학기술이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고 과학기술력량도 한층 강화되었다. 경제발전을 힘있게 견인하는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들과 첨단과학기술성과들이 수없이 이룩되고있는 공화국의 현실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공화국의 귀중한 전략적 자원은 또한 자력갱생을 제철화하고 애국의 열의로 피끓는 영웅적인민들의 창조적힘이다.

기적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기적의 원천은 인민대중의 양양된 정신력이며 불굴의 정신력을 지닌 인민이 발휘하는 힘에 한계가 없다.

이것은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며 년대와 년대마다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온 공화국인민들의 자랑스러운 투쟁행로가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

공화국인민들이야말로 민족자주위업의 전 로정을 자력갱생의 년대기로 빛나게 수놓아온 애국적인민, 영웅적인민이다. 세상에 공화국인민들처럼 애국열, 투쟁열로 불라는 무한대의 정신력을 지닌 위대한 인민은 없다.

자력갱생을 변영의 보검으로 과학기술을 추동력으로 삼아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해나가는 이런 인민을 굴복시킬수도, 당해낼수도 없다.

수십년간 다져온 자립경제 토대와 능력있는 과학기술력량, 자력갱생을 제철화하고 애국의 열의로 피끓는 영웅적인민들의 창조적힘을 귀중한 전략적 자원으로 하고있는 바로 여기에 공화국이 강대한 나라로 통성변영할 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리성철

공화국에서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새로운 기업관리방법인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확립한 때로부터 여러해가 흘렀다. 그 기간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의 생산활성화에서 큰 은을 내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의 리기성(공훈과학자, 후보원사, 교수, 박사)연구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 * *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평화와 안전이 담보되는 환경속에서 경제강국건설을 본격적으로 다그쳐나가는 오늘날의 시대적요구에 부합됩니다.》

리기성연구사는 새로운 기업관리방법은 발전하는 현실적으로부터 제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날 공화국에서 경제규모가 지난 시기보다 비할바없이 확대되고 업종도 늘어났으며 경제의 각 부문, 단위들사이의 관계도 더욱 긴밀해졌다. 경제발전에서 과학기술이 노는 역할이 강화되는 세계적추세에 맞게 나라의 산업구조를 기술집약적으로 전환시켜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새로운 기업관리방법은 이러한 현실적요구를 풀어나가는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볼 수 있다.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에서 생산활성화를 추동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자면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기업관리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주제100년대에 들어와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과 관련한 연구를 시작하면서 일부 공장, 기업소들에 시범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우월성이 확증됨에 따라 점차 전국에 확대하였습니다.》

리기성연구사에 의하면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의 내용은 3가지이다.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전략적관리의 옹호를 실현,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의 옹호를 실시,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도를 보장하며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는 것이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 주제사상의 원리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생산과 관리의 주인인 근로자들이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새로운 기업관리방법인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확립되어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고 하였다.

리기성연구사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공장과 기업소, 협동단체들이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에 기초하여 실제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기업활동을 창발적으로 진행하여 국가앞에 지닌 임무를 수행하면서 근로자들이 생산과 관리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우월한 기업관리방법이라고 강조하였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이 기업활동을 주도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이전보다 더 큰 책임과 확대된 경영권을 부여해주고 있다는 것이 리기성연구사의 견해이다.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요구대로 기업활동을 주도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업전략을 세우고 확대된 경영권을 활용하여 생산을 적극 활성화해나가고 있다. 한편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기술집약형기업을 지향해가고 있다.

리기성연구사는 무엇보다도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에서 새로운 기업관리방법의 요구대로 자체의 계획관리와 생산조직권을 적극 활용하여 인민들속에서 수요가 높은 명제품, 명상품을 생산하

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고 말하였다.

실례로 김정숙영양제사공장에서 국가에서 준 계획지표외에 자체의 계획관리와 생산조직권을 적극 활용하여 비단생산을 위한 누에고치 가공과정에 나오는 부산물을 리용하여 현대적인 비단솜이 불생산공정을 새로 확립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분리되어

로 틀어주고 생활화, 화학, 의학을 비롯한 여러 과학분야와 련관되어있는 화장품공업의 특성에 맞게 각이한 대학졸업생들로 공업시험소를 꾸리고 협동공업을 심화시키고있는것을 실례로 들 수 있다.

평양화장품공장에서도 제분개발된, 인재관리권을 활용하여 질 좋고 다양한 화장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평양화장품공장을 돌아본 유라시아경제동맹 《코레안케어》유한책임회사 인 사들은 일군들로부터 기술자, 로동자들에 이르기까지 지혜를 합쳐 가치있는 창안을 내놓고 적극 도입해나가는 기술발전체제가 확립되고 제품생성주기가 단축되어 《은하수》화장품들이 명제품으로 되고있는 데 주목을 물었다고 한다.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에서 제품개발권과 품질관리권을 리용하여 새로 개발한 제품들에 대한 품질보증을 적극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기간에 금강제육인종합식료공장,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평양326전선공장을 비롯한 10여개 단위의 27개 생산공정들이 식품안전관리체계, 품질관리체계인증 받은 사실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기업관리방법을 도입함으로써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에서 생산이 장성하고 그에 따라 종업원들의 생활수준이 올라간것도 주목할만 한 일이다.

기업체들에서 자체의 재정관리권을 가지고 류동자금을 비롯한 경영자금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국가납부계획을 수행하고 남은 자금을 자체 결산에 따라 확대재생산과 문화후생사업, 근로자들에 대한 물질적우대에 리용하고 있다.

리기성연구사는 자립적발전능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경제건설대진군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더 큰 생활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심화되고있다고 말하였다.

본사기자 홍병식

생산활성화를 추동하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있던 누에고치결면제거와 고치선별공정을 한계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공정배치를 새롭게 하여 많은 로력과 전기를 절약하고 있다.

지난해 금속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철생산을 다중화, 다양화해야 할 현실적요구에 맞게 다품종소량고질합금강생산공정과 망간철 생산공정을 확립하는 등 새로운 생산조직사업이 품이 크게 벌어진것도 기업소에 부여된 확대된 경영권을 원

로 하는 새로운 기업관리방법인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확립되어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고 하였다.

리기성연구사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공장과 기업소, 협동단체들이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에 기초하여 실제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기업활동을 창발적으로 진행하여 국가앞에 지닌 임무를 수행하면서 근로자들이 생산과 관리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우월한 기업관리방법이라고 강조하였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이 기업활동을 주도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이전보다 더 큰 책임과 확대된 경영권을 부여해주고 있다는 것이 리기성연구사의 견해이다.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요구대로 기업활동을 주도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업전략을 세우고 확대된 경영권을 활용하여 생산을 적극 활성화해나가고 있다. 한편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기술집약형기업을 지향해가고 있다.

리기성연구사는 무엇보다도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에서 새로운 기업관리방법의 요구대로 자체의 계획관리와 생산조직권을 적극 활용하여 인민들속에서 수요가 높은 명제품, 명상품을 생산하



리기성연구사



《통일신보》가 만난 사람들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우리 대의원

지난 7월 21일 공화국에서는 지방주권기관 대의원선거가 진행되었다. 선거결과 2만 7876명의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과 일군들이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되었다. 그들 가운데는 평양시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된 류순보통강구역인민위원회 위원장도 있다. 구역안의 주민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일육심

기자 평양시 보통강구역 인민위원회를 찾은 날은 삼복의 제는듯 한 무더위가 한창인 7월 30일이었다. 마침 그날은 공화국에서 남녀평등권법령이 발표된지 73돛이 되는 날이었다. 녀성들이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뜻깊은 날에 녀성일

들로부터 우리 대의원, 우리 위원장이라고 친근하게 불러주는 류순위원장님 《통일신보》 기자가 만났다.

《우리 구역 주민들은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가리켜 우리 위원장, 우리 대의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부름에는 언제나 어머니심정으로 자기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봐주는 우리 위원장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담겨져 있습니다.》

김정철책임부인의 말에 의하면 류순위원장은 일군들은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일육심, 진취적인 사업태도를 가지고 최대의 마력을 내야 하며 당과 인민앞에 자기의 충실성과 실천력을 평가받아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심장에 쏘아박고 자나깨나 그이의 뜻대로 살며 일하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우리 위원장동지께서는 사무실에 만나기 힘들답니다.》 보통강구역인민위원회 김정철책임부인이 하는 말이였다. 이어 그는 《우리 위원장동지께서는 온 구역을 메주뚫듯 하기때문에 어디에 가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고 하는 것이였다. 먼저 그에게서

를 시작할것은 지금으로부터 7년전이라고 한다. 그때 그가 보통강구역인민위원회에 와서 처음으로 한 일은 수도물문제를 해결한 것이였다. 구역주민들의 생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던 류순위원장은 일부 아 빠드들에서 수도물이 잘 나오지 않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수도관이 설치된지 오래된 것이 원인이었다.

류순위원장은 지체없이 회의 열고 수도관공사를 진행할것을 발기하였다. 여기에 필요한 방대한 량의 수도관을 해결하기 위해 류순위원장은 안주시, 문천시를 비롯한 여러곳을 밤낮없이 뛰어다니었다. 자체가 해결되지 않자 인민위원회 일군들로 공사를 조직하고 현장에서 살다 싶이 하면서 공사를 다그쳤다.

나이도 적지 않은 녀성위원장이 앞채를 메고 인민을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데 강동구 구역안의 기관, 기업소 일군들도 너도나도 도와나서 넓은 수도관을 들어내고 전부 새것으로 교체하였다고 한다.

수도관공사를 한데 이어 류순위원장은 또다시 물막기 확장공사를 통이 크게 전개하여 구역안의 모든 세대들에서 어느때나 수도물이 팔팔 나오게 하였다.

수도물문제를 해결한데 이어 승강기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는 긴장한 살림집문제를 해결하는 사업과 구역안의 모든 도로들을 번듯하게

포장하는 사업을 동시에 내밀어 짧은 기간에 끝낸 그의 남다른 조직력과 전개력, 일본새를 두고 누구나 감탄을 금치 못한다.

구역주민들의 생활상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어 마음을 놓겠다는 기자의 말에 《한걸요, 우리 위원장동지는 해결한것으로 그치지 않고 매일 엄격하게 총화하곤 합니다.》라고 김정철책임부인은 말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매일 저녁이면 인민위원회 위원장방에서 회의가 열리곤 한다. 일명 《물총화회의》, 《승강기총화회의》라고 불리는 모임이다. 회의에서는 구역안의 물뿔프장들과 승강기들을 인민위원회 일군들이 담당하여 매일 현지에 나가 료해대책한 정형을 총화한다.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되는 회의에는 인민위원회 일군들과 통사부장들, 상하수도관리소와 승강기운영사업소의 일군들이 참가하는데 물이 잘 나오지 않거나 승강기가 멎어서면 영남없이 위원장한테 줄경을 치르게 된다

기자 류순위원장을 만난 것은 그로부터 며칠후 보통강구역 세거리고급중학교에서였다. 세거리고급중학교라고 하면 중등일반교육부문에서 전형단위로 알려진 학교이다. 여기에도 교육사업을 중시하고 적극 떠밀어주는 류순위원장의 남모르는 수고가 숨겨져있다.

인민위원회 일군들이 한 학교씩 담당하고있는데 세거리고급중학교는 류순위원장이 담당하였다고 한다. 그

날도 류순위원장은 이곳에서 진행되는 교편물전시회때문에 나왔던 것이다.

바쁜 일정임에도 시간을 내어 기자와 만난 류순위원장은 손탁이 센 일군이라는 소문보다 다심하고 인정많은 어머니의 모습에 더 가까웠다.

《조국의 미래를 키우는 중요한 사업이 아닙니까. 한 때 교편을 한 저의 경력이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강도 강계시 북문동에서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뛰어난 공부를 잘하였다고 한다. 강계제1사범대학(당시)을 졸업하고 강계시에서 교편생활을 하다가 평양에 올라와 대성구역 6월9일북부중학교(당시) 교편으로 교육사업에 전심하였다.

그후 대성구역인민위원회 교육부로 소환되어 교육부 부장, 교육담당 부위원장, 대성구역인민위원회 위원장, 보통강구역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성장해온 류순위원장이었다. 알고보니 류순위원장은 책임감을 좋아하고 무슨 일에서나 막히는게 없는 다재다능한 박사였다.

《아는것이 많아야 맡은 일을 더 잘할 수 있는데 아는 것이 적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니다. 그래서 정치도시와 기술시적인 물론 장년소설 등을 읽기 시작했는데 일이 바빠 끼니를 번질 때는 있어도 계획한 책읽기만은 꼭꼭 수행하고야 잠자리에 드는 것이 습관으로 되었습니다.》

부자금을 잘 다스리고 노래도 잘 부르는 류순위원장은 인민위원회적으로 진행되는 예술공연에서 늘 큰 몫을 맡아하곤 한다. 체육에도 관심이 많고 소질이 있어 탁구종목경기와 수영종목경기에서는 누구에게도 짝지 않는다고 한다.

류순위원장이 우리 위원장을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 것은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의 웅대한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구역안의 주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는 호주로서 인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어떻게 하면 맡은 일을 더 잘해나갈 것인가 하는 하나의 생각뿐입니다.》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대의원, 류순위원장은 오늘도 인민의 참다운 총복으로서 구역주민들을 위한 남모르는 헌신의 탐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다.

본사기자 김준경

는 작은 수첩이 있다. 그 수첩에는 구역안의 수백여명에 달하는 전정로병들과 영애군인들, 생활상 예로가 있는 세대들의 집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이들에게서 무엇이 애로되고 언제, 어떻게 해결해줄 것인가 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적혀져있다.

《우리 위원장동지께서는 눈물도 많고 위가 많습니니다. 그래서 나는 위원장동지를 어머니처럼 따릅니다.》

보통강구역 대보동에서 살고있는 한 류특영애군인이 한 말이다.

류순위원장의 첫 일과는 아침일찍이 구역을 한바퀴 돌아보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언제나 구역주민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술경을 같이하고있다. 하기에 구역주민들은 그를 만나면 마음속고충도 허물없이 털놓곤 한다.

구역안의 주민들의 생활상상을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어나며 많은 일을 한 류순위원장을 나라에서는 평양시인민회의 대의원으로, 공화국공민의 최고영예인 로력영웅으로 내세워주었다.

《인민을 위해 열사복무하고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 것은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의 웅대한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구역안의 주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는 호주로서 인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어떻게 하면 맡은 일을 더 잘해나갈 것인가 하는 하나의 생각뿐입니다.》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대의원, 류순위원장은 오늘도 인민의 참다운 총복으로서 구역주민들을 위한 남모르는 헌신의 탐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다.

본사기자 김준경



군을 취재한다는 류다른 심정을 안고 그의 사무실로 향하였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방은 비어있었다.

《우리 위원장동지께서는 사무실에 만나기 힘들답니다.》 보통강구역인민위원회 김정철책임부인이 하는 말이였다. 이어 그는 《우리 위원장동지께서는 온 구역을 메주뚫듯 하기때문에 어디에 가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고 하는 것이였다. 먼저 그에게서



경애하는김정은원수님의참된아들딸이되자!

새로 개건된 조선우표박물관을 찾아서 (5)

우표발전의 새로운 전성기

천리마의 기상이 나래치고 공화국의 위용이 만방에 펼쳐지던 역사적인 년대들은 조선우표발전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한 뜻깊은 시기이기도 하였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우표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명철하게 분석하시고 그 발전에 커다란 심혈을 기울여오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조선우표는 그 생활력을 남김없이 파시할수 있었다.

그 하나하나의 우표들에 절세위인의 세심한 지도의 손길이 어려웠다고 생각하니 무심히 볼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국제전람회에 출품할 수성품의 우표들을 보여주시며 우표들의 인세를 잘할때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는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우리는 그의 지도밑에 처음으로 발행된 립체우표들이 전시된 곳으로 향하였다.

제2차 올림픽경기대회를 반영한 여러 종의 우표들을 보느라니 당시 많은 나라의 통신이 앞을 다투어 전



하였던 보도내용들이 상기되었습니다.

《...조선의 구영조선수는 권투 54kg급 결승경기에서 미국선수를 5 : 0으로 물리치고 이번 올림픽경기대회에서 아시아의 첫 유일한 권투 금메달획득자로 되었다.》

체육을 비롯한 문화분야에

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룩된 력사적시대에 대한 긍지높은 추억은 우리의 가슴을 뭉뚱하게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여기에 전시되어있는 주제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 기념우표도안도 몸소 보여주시고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었습

니다.》

잊을수 없는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창시하신 영생 불멸의 주제사상을 세계에 널리 선전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문제들에 대하여 밝혀주시면서 우표를 겸손하고 모욕하게 창작할

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고 한다.

전시판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이전 유고슬라비아의 제2대통령과의 뜻깊은 상봉을 보여주는 4종의 우표들도 있었는데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대외활동을 반영한 첫 우표였다.

우리는 여기서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 45돐을 맞으며 발행된 우표가 그의 영상을 모신 첫 우표라는 이야기도 감명깊게 들었다.

해설을 마치면서 강사는 인민들의 사소한 불행도 덜어주시려고 마음써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을 전하는 편지봉투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가장 인민적인 우리 나라 우편제도는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 밑에 빛나는 력사를 새겨왔다고 말하였다.

절세위인들을 모시어 이 땅우에는 영원히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력사가 흐를것이라는것을 공화국의 력사적 화폭을 반영한 우표들은 세기를 이어 전해주고있었다.

본사기자 류연철



모험산의 무공부족로

증부지대에서 찾은 참매의 번식지

국가과학원 동물학연구소의 연구사들이 공화국의 증부지대에서 참매의 번식지를 찾아냈다.

국가과학원 동물학연구소의 과학자들은 험한 산밭을 오르내리며 참매의 분포지역과 생태학적특성을 밝히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왔다.

지난 5월 중순 연구사들은 새로운 대문리와 판교군 사동리일대에 위치하고있는 양암산동물보호구역에서 소나무우에 둥지를 틀고 알을 품고있는 참매를 발견하였다. 그로부터 한달후에는 알에서 깨어난 새끼참매를 확인하였다.

동물학연구소 동물생태학연구소의 조사성원들도 같은 시기에 토산군 봉불리에 있는 학봉산동물보호구역에서 여러개의 참매둥지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지난 7월초에는 4마리의 새끼 참매들에게 날기련습을 시키고있는 한쌍의 참매를 관

찰하였다. 지금까지 참매는 주로 량강도와 자강도, 함경남도를 비롯한 우리 나라의 북부지대에서 번식하는것으로 알려져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국가과학원 동물학연구소의 과학자들이 강원도와 황해북도일대에서 참매의 번식지를 찾음으로써 참매가 공화국의 북부지대에서 번식한다는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게 되었다.

이것은 공화국의 자연보



호정책의 생활력의 과시이며 국조인 참매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국가과학원 동물학연구소에서는 이번 성과에 토대하여 모든 지역에 참매를 퍼주기 위한 연구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새 화장품 개발에 힘을 넣어

평양화장품공장에서 피부에 안전하고 사용이 편리하며 효과가 뚜렷한 새 제품을 개발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이미전부터 평양화장품공장에서는 현행생산과 함께 세계적으로 이류한 화장품들과 견줄수 있는 화장품들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여왔다.

새 제품개발에서 공장의 연구사들이 관심을 돌리것은

국내에 흔한 천연물질을 화장품의 기초원료로 리용하는 것이었다. 공장에서는 국내의 천연원료에 의거하여 화장품의 질을 높일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여러차례의 립삼검토과정에 새로 개발된 팜마분을 비롯한 치료용화장품들의 피부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증하였다.

또한 기능적인 치료용화장품개발에 힘을 넣어 모기방지향수, 모기방지크림과 같

서 노래하고 춤추며 즐겁게 놀았다.

백종이라는 말은 이날에 백가지 즉 여러가지 음식을 갖겠다는 뜻에서 유래된것이다. 이날 어떤 지방에서는 씨름이나 장치기와 같은 민속놀이들도 하였다.

백중날 농촌에서는 호미씻이를 하였으며 또한 이날부터 길쌈을 시작하였다.

본사기자

인기를 끄는 낫가공제품들

평양대성보석가공공장에서 여러가지 종류의 질 좋은 낫가공제품들을 생산하고있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낫가공제품들은 집기류와 반상기의 두가지 종류로 나눌수 있다.

공장에서 생산하는 낫가공제품들은 밝고 청신한 광택이 나며 부식되지 않을뿐 아니라 항산화작용 등 사람들의 건강에 좋은 역할을

한다. 또한 높은 세공기술을 도입한것으로 하여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본사기자



12첩반상기 (조선봉건왕조시기)

건강에 유익한 과일들

몸무게를 줄이려면 추리를 먹는것이 좋다. 추리에는 칼리움이 많이 들어있다. 추리는 인체에서 불필요한 수분이 빠져나가게 하며 심장활동을 도와준다. 위궤양과 파산성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추리를 먹는것이 좋다. 살구에 들어있는 과당과 자당은 기혈관련호르몬인 엔도르핀의 생성을 자극한다. 살구는 심장혈관에 유익한 작용을 한다. 또한 감삼선에 요드를 공급해주며 마그네시

움과 리엄이 들어있는것으로 하여 사람의 사유능력을 높여준다. 살기로 차를 만들어 마시면 갈증을 덜고 위점막을 보호해준다.

복숭아살에는 많은 량의 비타민C, 칼슘, 철, 카로틴이 들어있다. 복숭아는 부종이 온 사람들과 입맛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좋다. 복숭아와 살구, 추리로 만든 살구는 심장혈관의 유익한 작용을 한다. 또한 감삼선에 요드를 공급해주며 마그네시

본사기자

부채와 우리 민족의 풍습

우리 민족이 창조한 문화적재부개운에는 오늘도 전해지고있는 부채도 있다.

처음에는 《부치는 채》로 불리우던것이 점차 부채라는 말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이전시기에는 대체로 버드나무껍질과 부들을 비롯한 나무껍질과 풀로 엮은것 또는 날짐승의 깃과 털로 만든 둥근 모양의 부채가 널리 리용되었다.

부채는 그후 고려,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천과 종이, 참대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졌다.

부채의 종류에는 크게 둥근 부채와 접이부채가 있었다. 둥근 부채는 부채면이 둥글고 거기에 손으로 칠수 있

는 자루가 달려있으며 접이 부채는 여러대의 가는 살을 한데 묶어 접었다 폈다 할수 있게 되어있다.

우리 선조들은 더위가 시작되는 음력 5월초가 되면 부채를 만들어 마을사람들과 친구들사이에서 서로 주고받곤 하였다.

부채는 더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만이 아니라 리례이나 장식용으로도 쓰여왔다.

흔래에 신랑의 얼굴가리개로 쓰이는 부채, 보기 좋은 그림이나 멋진 시구절을 써넣은 집안장식품으로 보관해두는 부채같은것이 그려왔었다.

본사기자



덤비는 안해와 까다로운 남편

안해가 오래간만에 숨어죽을 뻔한 남편에게 대접하였다. 《당신이 좋아하는 숨어죽이예요. 어서 드세요.》 그런데 남편은 잠자코 앉아만 있었다. 《왜 드시지 않아요?》 《당신이 죽맛을 한번

보요.》 《왜 그러세요?》 《맛보라니까.》 《아이, 성은 왜 내세요?》 《글쎄 한번 맛보라니까.》 《어마나, 술가락이 없었구만요.》

사화

삼 록 수 (3)

글 김철환, 그림 채대성

다음날 새벽이었다. 김서방은 와삭와삭 숲을 헤치는 소리에 소스라쳐 일어나 밖을 내다보았다.

웬 짐승들이냐 하여 삼을 심어놓은 곳을 바라보던 그는 자기의 눈을 의심하며 놀랐다.

비로봉산마루에서 수많은 사슴떼가 줄지어 내려와 샘물터두리에 심은 산삼포기에 머리에 들린 뿔을 드리우고 뿔에 맺힌 새벽이슬을 뿌려주느라 하였다.

사슴들은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새벽마다 떼를 지어 내려와 삼포기에 이슬을 뿌려주었다.

그러자 산삼은 우적우적 날마다 키를 솟구쳤다. 이어 빨간 살색이 사방에 뿔겨나더니 다시 그곳에서 뾰족뾰족 삼순이 돋고 삼순이 돋자 꽃이 피고 꽃이 피자 곧 열매를 맺는것이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샘물은 은물 삼꽃이 만발한 삼밭을 이루었다. 더욱 신기한것은 산삼포기가 뾰족뾰족 땅우에 새싹을 내밀 때마다 사슴들이 그우에 사슴뿔을 하나씩 뿔기어 못짓승들이 삼을 다치지 못하도록 가지방패물을 만들어놓는것이였다. 산삼은 날마다 무성하게 자라고 사슴뿔은 뿔바위모양으로 땅에 뿌리를 박고 굳어져 삼을 지켜주었다.

어느날 삼밭을 김매던 김서방은 땀흘린 이마를 훔치

며 샘물을 달게 마시었다. 샘물은 차고 시원하며 향긋한 맛을 냈다.

《어, 물맛이 참 좋구나!》 하고 혼자소리를 한다. 그는 문득 물우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눈이 둥그래졌다.

물에 비친 짧은이의 모습이 자기를 향해 싱글뿔굴 마주 웃는것이 아닌가! 다시 보아야 그것은 분명 자기의 모습이었다. 한뼉 고생 속에 주름잡던 얼굴은 어디에 가고 이렇게도 젊어질수가 있던 말인가? 이상한 일이었다.

그리고보니 그사이 아프고 쑤시던 메맛은 어쩔도 썼은듯 사라지고 굼뎠던 허리도 주욱 퍼진것 같았다. 온몸에는 마냥 새힘이 젊은이처럼 솟구쳤다.

김서방은 꼭 꿈을 꾸는것 같았다. 눈을 비비고 살을 꼬집고 《어! 어!》소리를 질러보았으나 분명 꿈은 아닌생시였다. 그래서야 김서방은 그 깨달을 안듯 무릎을 칠척 했다.

《흥거니, 샘물이 그사이 조화를 부렸구나. 온 팔안에 한번 갈린것이 산삼, 록용뿐이냐 그 산삼이 줄을 주고 록용이 녹아내려 솟아난 샘물이니 이는 분명 장생불로 산삼록용약수라!》

샘물의 비결을 안 그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그날로 마을에 달려내려가 이 사실

을 마을사람들에게 알리주었다.

머슴군 김서방이 총각처럼 젊어진것을 본 마을사람들은 모두 눈을 비비며 놀랐다. 그걸로 마을사람들은 너도나도 김서방을 따라 샘물에 올라가 약수도 마시고 동이마다 가득 신기한 샘물을 길어왔다.

그 산삼록용약수를 마시자 앓던 사람들은 가신듯 병이 나고 늙은이들은 젊어졌다. 녀인들은 꽃같은 미인이 되고 남자들은 힘이 장사같은 장부가 되었다.

이 소식이 바람같이 날개가 돌쳐 배부자의 귀에도 전해졌다.

늙은 김서방이 산에서 죽은줄만 알았던 배부자는 산삼록용이 우리나라의 샘물이 있다는 소문을 듣자 마누라의 손목을 잡고 허둥지둥 샘물로 달려갔다.

산삼과 록용이 그 팔안에 또한 한번 깔렸다하더니 어서 가서 산삼록용도 한집 지고오고 신기한 약수도 실컷 마시고 오리라... 하며 배부자네의 자어질것 자빠질것 숨이 턱에 닿아 혈레벌떡 샘물에 이르니 과연 한곳에 정가로운 샘물이 평평 솟구쳐 오르고있었다.

배부자는 먼저 세모진 살모사눈알을 훔쳐 굴리며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사방에 보이는것은 무성한 잡초뿐이요 밝히는것은 어디

나 뿔처럼 내뿜은 바위뿐이였다.

다시 뿔코를 들어 뿔틈하얏 숨을 맡아보았으나 삼향기는커녕 풀향기조차 꼬물꼬물도 느껴지지 않았다.

(흥, 미혹한것들이 잡초와 가지바위를 놓고 산삼록용이라고 떠들었다. 산삼록용도 못 가려보다니...)

배부자는 공연히 역증이 올라 사망 뉘, 뉘! 침을 뱉고 서가서기 발에 걸쳐며 찌르는 뿔바위를 힘껏 걸어쳤다. 그러자 발에서 벉벉하고 뿔코가 튀기며 다리가 끊



어질것 아파났다.

《이크!》하며 벌렁 나자 빠진 배부자는 샘물을 마시려고 영지칠음으로 영기영기 그곳에 다가갔다.

샘물은 이상하게도 차고 상투하였다. 《음, 이건 분명 약수라다!》

마시고 또 마시었다. 배가 물웅덩이처럼 불쭙해지자 가쓰로 몸을 일으켜나서 이것 하해도 몸이 근질거리나는것 같았다.

마침내 배부자와 마누라는 무거운 물때를 뚱긋거리며 끝까지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몰마신 배가 차츰 무거워 자연 네발걸음으로 경사진 산길을 영기영기리며 내려갔다. 내려가는 사이 배는 갈수록 남산같이 불어나는것이였다.

마누라는 그만 숨이 가빠앞서가는 령감을 바라보느라니 네발걸음으로 움지락거리

비의 모양이 아닌가? 《허허, 마누라도 꼭 두꺼비 걸는 모양새구만!》

그들은 서로 자기들의 몸을 보자 다같이 와들 놀랐다. 온몸에 울퉁불퉁 음식이 내뿜고 네발걸음으로 걷는 사이 배는 물독같이 처지고 손발은 가드라들어 영나없는 움두꺼비의 모양이 되었다. 영?... 이제 웬 꼴이람?... 샘물의 조화가 분명하였다.

이때 멀리서 사람들이 골짜기를 따라 샘물을 길어가려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다. 배부자와 마누라는 그들을 보기가 민망하여 얼른 숲속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리고 황황히 땅에 머리를 틀어 박고 사람들이 어서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사람들은 샘물을 찾아 그렇게 없이 오고 또 왔다. ...

그후 사람들은 샘물어귀 길옆에 언젠부터 생겼는지 알수 없는 두개의 괴상한 움두꺼비바위를 보게 되었다. 배부자와 마누라가 끝내 거기에서 괴상한 모양으로 마물에 내려가지 못하고 바위로 굳어진것이였다.

금강마을사람들은 산삼, 록용이 녹아내린 삼록수를 마시며 죽이 무병장수하여 화목하게 살아갔다. 산삼과 록용은 여전히 약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고 그것이 우리나라 샘물은 착한 사람들에게만 효험을 보았다. 지금도 구룡연을 찾아 신계동의 아름다운 계곡을 따라 들어가는사람들 삼록수가 찾아오는 사람들을 받기며 평평 솟구치고있다. (끝)